



조경 수목의 비배 관리

1. 비료의 종류 및 효과

비료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별된다.

유기질 비료는 퇴비, 동물의 분뇨 및 유박등을 말한다. 유기질 비료는 거름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므로 지효성비료라고도 부른다.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면 토양에 들어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식물에게 질소를 공급하여주며 또한 여러가지 양분도 함유하고 있을뿐아니라 식물에 유익한 토양균을 번식시켜 주고 토양을 부드럽고 공기유통이 잘되게 하여 토양을 개량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수종을 재배한다하여도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여 가꾼 수목은 화학비료를 시비하여 가꾼 수목보다 매우 건강하여 병충해는 물론이고 동해에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따라서 조경수목을 재배할때에 가능하면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병해에 약한수종, 동해에 약한 수종 및 고

가의 수목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기르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주목, 홍단풍, 칠엽수, 철쭉류, 금송, 모과나무, 모란, 배롱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화살나무, 장미 등의 수종들은 유기질 비료 사용에 힘써야 한다.

화학비료는 비료공장에서 제조된 비료로 거름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거름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이 배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화학비료보다 여러양분이 함유되어 있어 유리하다.

특히 순질소성분인 요소비료를 시비하면 우선 당장은 효과가 빠르나 너무 도강하고 연약하게 성장하여 병해 및 내한성에 약하게 된다.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면 여러모로 좋으나 노동력이 너무 필요하게 되고, 화학비료는 적은양으로 넓은 면적에 노동력이 적게드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어도 식재전에 충분한 유기질 비료를 넣어 땅힘을 돌구어 준 후 화학비료로 시비하면 비료의 효율이 높아

져 경영원칙의 시비에 가장 바람직하겠다.

기비를 넣는 방식은 가급적 식재전의 가을에 땅이 얼기전에 퇴비를 충분히 넣고 땅갈기 및 배수처리를 하여둔다.

이 시기에 넣는 유기질 비료는 분해가 미진한 거친 퇴비 및 분뇨라도 겨울부터 식재전까지 분해기간이 있으므로 관계없다.

2 시비시기

수목에 시비하는 시기는 수종, 거름의 종류 및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나무의 휴면기 즉 낙엽진후부터 봄 잎이 피기전에 시비하는것이 거름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목생리에 이상적이다.

겨울에는 옥항이나 회양목에 인분을 주다가 잎과 나무가지에 거름찌거기가 묻으면 아무 관계가 없으나 생장기에는 이러한 경우 인분이 닿게 된 곳은 전부 고사하게된다. 이는 거름의 피해, 혹은 수목 시비간 선정에 좋은 참고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묘목생산 재배에서는 파종전에 밑거름과 비료를 넣고 발아후 어린묘의 성장기간에는 중간거름을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종 또는 수목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월말 이후에 화학비료를 많이 시비하면 대부분의 수종이 규격은 커지나 묘목이 웃자라 연약하게 되므로 동해를 입게 되고 동해는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해에 활착율이 좋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자.

5월 이후 장마철에 시비를 하여도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수목의 성장과정을 관찰하여 거름기가 부족하면 중간 거름을 시비하게 되는데 이는 묘목을 식재하여 어느정도 성장한 수목이어야 하며 또한 동해에 강한 다비성 수종이어야 한다.

동해에 강한 다비성 수종중에 중요 수종은 산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낙우송, 꽃사과나무, 느릅나무, 능소화, 두충나무, 마가목, 모감주나무,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쪽동백, 튜립나무, 프라타너스, 피나무, 참나무류, 회화나무 등이며 중부지방에 식재되는 수종중 동해에 약한 수종에는 가이즈까향, 감나무, 구상나무(유묘시), 때죽나무, 모과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실편백, 자귀나무, 장미, 좁작살나무, 중국단풍(유묘시), 단풍나무, 측백나무, 화백 등이다.

3. 거름주기

나무에 거름을 줄때에는 땅을 파고 거름을 묻어주어야 거름효율이 높지만 실제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땅을 파고 거름을 묻는것은 거름효율은 좋다 하겠으나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며, 나무의 뿌리를 끊어 성장에 피해가 있고, 또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거름인 경우에는 분해과정중 가스의 피해를 입을 염려도 없지 않아 유기질비료이든 화학비료이든 토양전면에 살포하고 다목적 관리기로 골을 쳐 올려 거름이 약간이라도 덮이게 하면 더욱 좋고 정녕 여의치 못하면 덮지 않아도 관계 없겠다.

거름을 무더기로 주는 방법은 수목의 거름피해 염려로 좋지 않으며 더욱이 거름성분이 토양의 일부분에 몰려있어, 그 양을 전면에 살포하는 방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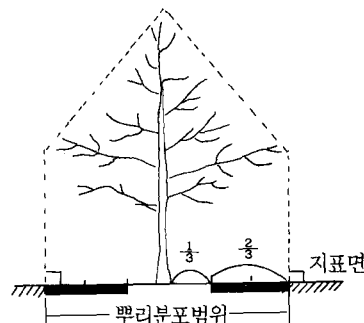
묘목이든 옮겨심은 나무이든 거름을 너무 많이 또는 나무에 너무 가까이 주어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거름을 토양전면적에 배분하여 고루고루 뿌려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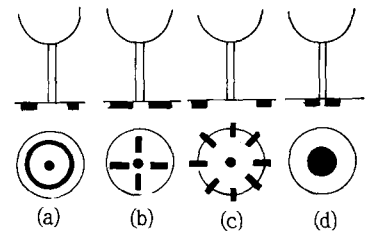
큰 수목인 경우 부득이 부분적으로 거름주기를 할 경우 알맞은 위치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간과 역지의 거리를 3분하여 적어도 수간에서 흙이상의 거리에서 역지끝에서 내린 지점내에 거름주기를 하며, 어린나무의 경우 역지끝의 지표면 지점에 거름주기를 하는것이 적당하다 하겠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하여도 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가는뿌리는 거의 지표면에서 50cm내의 깊이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더 깊이 줄 필요는 없다.

위에서 기술한 동해에 약한 수종은 화학비료로 늦거름 많이 주기를 절대 피하며 퇴비 및 유기질비료는 지표면 위에 덮는 정도로 비료를 주어 나무의 세력을 약간 둔구어 주는 정도로 실시하고 반대로 다비성 수목은 거름을 충분히 주어 급성장을 피하도록 재배한다.



후색부위 : 거름줄부위



거름주는 여러가지 방법